

2012년 일본의 경상흑자 과거 최소 4.7조 엔

- 재무성이 발표한 '12년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'11년 대비 50.8% 감소한 4조 7036억 엔으로 집계
-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와 LNG 등의 수입 증가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어 경상흑자 규모 축소는 물론, 적자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음

□ '12년 일본의 경상수지 축소

- 2012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'11년 대비 50.8% 감소한 4조 7036억 엔을 기록
 - 소득수지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수익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, 무역·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2년 연속 축소
 - *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축소되었지만 수송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어 '기타서비스 수지'가 적자로 전환,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2년 연속 증가
 -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연료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수지적자가 전년대비 259%가 증가한 약 5.8조 엔으로 과거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

<일본의 국제수지 추이>

[단위: 억엔, %]

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 (속보치)
무역·서비스수지 (전년 대비)	98,253 (33.8)	18,899 (-80.8)	21,249 (12.4)	65,646 (208.9)	-33,781 (-)	-84,139 (149.1)
무역수지 (전년 대비)	123,223 (30.2)	40,278 (-67.3)	40,381 (0.3)	79,789 (97.6)	-16,165 (-)	-58,051 (259.1)
수출 (전년 대비)	797,253 (11.3)	773,349 (-3.0)	508,872 (-34.2)	639,218 (25.7)	627,248 (-1.9)	614,268 (-2.1)
수입 (전년 대비)	674,030 (8.4)	733,071 (8.8)	468,191 (-36.1)	559,429 (19.5)	643,412 (15.0)	672,320 (4.5)
서비스 수지	-25,007	-21,379	-19,132	-14,143	-17,616	-26,087
소득수지 (전년 대비)	164,670 (19.2)	161,234 (-2.1)	127,742 (-20.8)	124,149 (-2.8)	140,384 (13.1)	142,613 (1.6)
경상이전수지	-13,581	-13,515	-11,635	-10,917	-11,096	-11,439
경상수지 (전년 대비)	249,341 (25.2)	166,618 (-33.2)	137,356 (-17.6)	178,879 (30.2)	95,507 (-46.6)	47,036 (-50.8)
투자수지	-220,653	-178,312	-138,025	-172,630	11,440	-84,266
직접투자	-60,054	-107,074	-58,725	-50,487	-87,275	-96,071
증권투자 (대차 거래 제외)	82,515	-287,867	-205,053	-132,493	129,255	-33,497
금융파생상품	119,928	-243,218	-212,549	162,361	152,965	-62,441
기타 투자 (대차 거래 제외)	3,249	24,562	9,487	10,262	13,470	-5,981
기타 자본수지	-246,362	192,067	116,266	89	-44,010	51,284
기타 자본수지	-284,131	145,100	122,472	29,954	-67,798	80,344
기타 자본수지	-4,731	-5,583	-4,653	-4,341	282	-838
자본수지	-225,383	-183,895	-142,678	-176,971	11,722	-85,104
외화준비 증감	-42,974	-32,001	-25,265	-37,925	-137,897	30,515
오차 탈루	19,016	49,279	30,587	36,017	30,669	7,553

주) 반올림으로 합계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음

자본수지 및 외화준비 증감의 마이너스는 자본의 유출(자산의 증가, 부채의 감소)을 나타냄

자료: 재무성 "국제수지의 추이" (2013.2.8)

- ‘12년 12월 경상수지는 2,641억 엔의 적자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경상적자를 기록
- 무역수지는 중국과 EU지역의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였고, 광물성 연료와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적자가 4개월 연속으로 확대
- 소득수지의 경우 직접투자에서는 배당금 지불 증가로 수익이 감소되었지만, 증권투자에서는 배당금과 채권이자 등이 늘어 수익이 증가하였으며, 소득수지의 흑자폭은 2개월 만에 확대되었음

<월별 일본의 국제수지 추이>

[단위: 억엔, %]

	2012년7월	8월	9월	10월 (속보치)	11월 (속보치)	12월 (속보치)
무역·서비스수지 (전월 대비)	-7,352 (94.7)	-5,006 (-31.9)	-12,776 (155.2)	-7,939 (-37.9)	-8,725 (9.9)	-9,760 (11.9)
무역수지 (전월 대비)	-4,794 (187.7)	-2,539 (-47.0)	-9,810 (286.4)	-5,570 (-43.2)	-6,169 (10.8)	-7,190 (16.6)
수출 (전월 대비)	49,350 (-6.7)	50,346 (2.0)	48,819 (-3.0)	48,026 (-1.6)	48,712 (1.4)	48,930 (0.4)
수입 (전월 대비)	54,144 (-0.7)	52,884 (-2.3)	58,629 (10.9)	53,596 (-8.6)	54,881 (2.4)	56,121 (2.3)
서비스 수지	-2,558	-2,467	-2,966	-2,370	-2,556	-2,570
소득수지	12,023	12,813	12,216	12,783	11,846	12,160
경상이전수지	-788	-745	-776	-702	-862	-1,419
경상수지 (전월 대비)	7,611 (88.0)	7,062 (86.9)	-1,335 (-)	4,141 (-)	2,259 (-45.4)	981 (-56.6)

주) 반올림으로 합계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음

자료: 재무성 "국제수지 추이" (2013.2.8)

□ 엔저의 가속과 경상수지 적자화에 대한 우려

- 미국과 유럽은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있으나, 일본은 향후 엔저 지속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음
- 미국은 '12년 무역적자가 5,404억 달러(약 50조 엔)로 전년 대비 3.5% 감소, 최근 셰일가스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무역적자에서 약 60%를 차지했던 에너지 분야의 수지가 개선되었음
- * 자료: 미국 · 상무성 <http://www.bea.gov/newsreleases/international/trade/2013/trad1212.htm>
- 유로권에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경상흑자가 확대, 흑자폭은 유로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최근 엔화 매각 · 유로 매입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작용
- 일본의 '12년 경상수지흑자 축소는 세계적인 경기감속 영향으로 무역이 축소된 결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음
- '12년 말부터 자동차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, 엔저가 진전됨으로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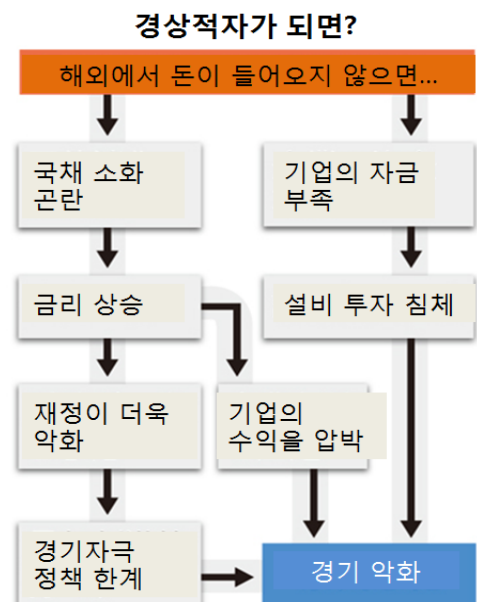
‘13년에는 2012년과 같은 속도로 경상흑자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

- 그러나 일본의 산업구조는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구조에서 해외 소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도로 전환되고 있어 경상흑자의 축소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

○ 엔저 효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어 일본의 수출이 회복되어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, 동시에 수입 증가도 우려되고 있음

- 미국의 애플, 한국 삼성의 스마트폰, 일본자동차의 역수입 등 국내소비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, 일본기업들도 해외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만약 다시 엔고로 전환되면 경상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음

- 넷세이기초연구소의 야지마 연구원은 수입비용의 상승으로 2010년대 후반에는 경상적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



자료 : 마이니치신문(2013.2.8)

□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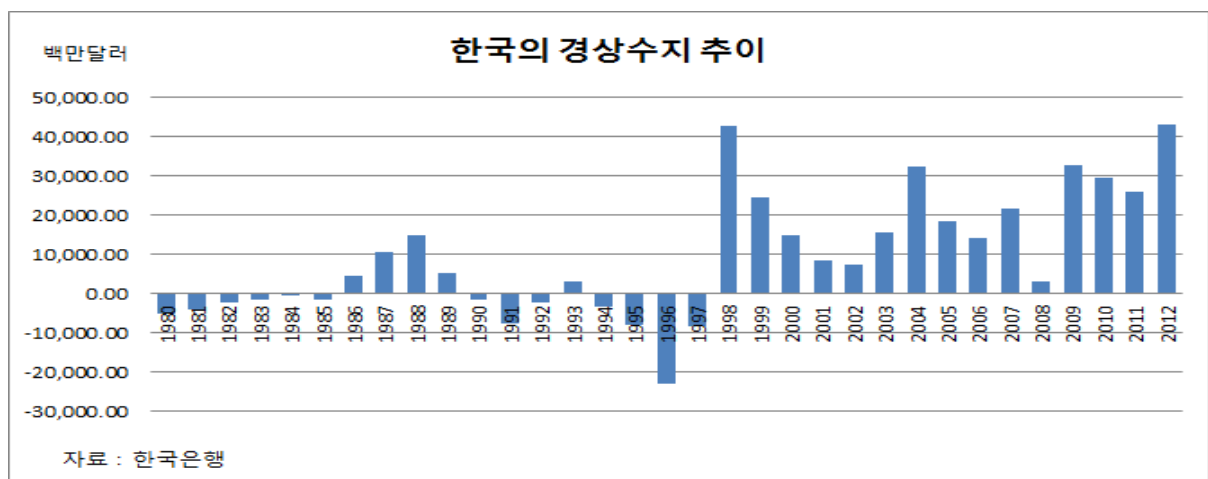
-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는 우리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
-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구조가 정착되면 금리 상승, 재정적자 불안 등으로 급속한 엔저가 진행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

○ 우리나라의 '12년 경상수지는 433억 달러로 1980년 이후 최대의 경상흑자를 기록

- 그러나 무역수지의 감소 추세와 최근의 원고 현상으로 인해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

* 한국의 무역수지 : ('09) 404억 달러, ('10) 412억 달러, ('11) 308억 달러, ('12) 285억 달러

- 따라서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 전략이 필요하며 급격한 원화 환율변동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



<참고 자료>

일본 재무성 ‘국제수지 추이’ (2013.2.8.)

닛케이신문(2013.2.8/9)

마이니치신문(2013.2.8)